

기독교 영성훈련으로의 초대

샌 안토니오, 2009

기독교 영성훈련은 성경에 의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정, 성품, 생각,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조율되어 감에 따라 바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우리의 내면과 삶의 현장속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의 과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부르심에 항상 순종하는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지 않은채,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데 그치는 삶에 만족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으로 성장하기 원하며, 그러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릴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시며,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생명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지으셨습니다.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때문에, 그 생명과 사랑을 받아 누리며, 표현할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거룩한 형상이 손상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백성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동체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것을 경험할수 있으며,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변화와 성숙 또한 예수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인 화목되고 회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세상에 기쁨으로 알려야 할 복된 소식인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인간이 성취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과 역경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참여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에 활짝 열려있어야 하며, 특별히 말씀과 성례를 포함한 다양한 기독교 훈련의 전통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앞에 자신을 열어드릴수 있도록 합니다.그 결과, 시간의 경과와 체험이 쌓여감에 따라,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7:37-39
*요한복음 10:10
로마서 8:29
고린도전서 11:1
고린도전서 15:49
고린도후서 3:17-18
고린도후서 4:16-18
고린도후서 5:16-21
갈라디아서 4:19
에베소서 1:3
에베소서 3:16-19
요한일서 3:2
요한일서 4:17

창세기 1:26-28
창세기 3:1-7
잠언 8:22-31
이사야 42:5-9
예레미야 31:33-34
마가복음 12:28-34
요한복음 1:1-18
요한복음 13:34-35
로마서 5:9-11
로마서 8:1-11
로마서 8:19-23
에베소서 2:11-22
골로새서 1:9-23
데살로니가전서 5:23
요한일서 2:7-11

마태복음 5:43-48
마태복음 11:29-30
누가복음 6:40
요한복음 7:38
요한복음 15:5-17
로마서 12:1-2
갈라디아서 5:16-25
빌립보서 2:12-13
빌립보서 3:12-16
디도서 2:11-14
히브리서 5:13-6:1
히브리서 12:7-13
야고보서 4:7-8
베드로전서 2:2

영성훈련은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알며, 잘 따르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가려고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소망을 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변혁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바로 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로 그 곳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릅니다. 영성공동체는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며, 사랑의 사명을 갖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영적 전초기지인 것입니다.

영성훈련은 그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히 베푸시는 사랑을 점점 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향해 더욱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민족, 어느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무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훈련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앞에 좀 더 주의 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 자신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도 이 훈련에 동참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초청하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4:1-2
마태복음 18:20
누가복음 6:12-19
요한복음 17:20-26
사도행전 2:42-47
로마서 12:4-8
고린도전서 12:1-7
갈라디아서 6:1-2
에베소서 4:1-16
히브리서 10:23-25
베드로전서 2:4-10

이사야 60:1-4
마태복음 5:14-16
마태복음 28:18-20
요한복음 3:16-21
요한복음 20:21-23
고린도후서 5:20
갈라디아서 6:10
요한일서 4:7-21

마태복음 5:1-10
마태복음 13:44-46
마가복음 1:15
누가복음 9:23-24
로마서 12:1-2
고린도후서 6:1
디모데전서 6:11-12
요한계시록 21:2
요한계시록 22:17